

10월 2일(월) / 시87-90편

▶**내용요약:** 시편 87편은 거룩한 성 시온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될 것을 노래한다. 88편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인의 고통이 표현되는데 이를 통해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한다. 89편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한다. 고난 중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임을 확인해준다. 90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생활을 할 때 모세가 기록한 시로 시편들 중에 가장 오래된 시이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질문:** 모세는 인생의 연수를 말하면서 연수의 자랑은 무엇이라고 하는가?(90편)

▶**생각하기:** 모세는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90:12)라고 한다. 살아온 날과 남은 날을 계수하다보면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또 얼마나 남았는지를 인지하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바쁘게만 사는 현대인에게 시편 90편은 상당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우리는 **인생의 날을 계수하며 인생의 지혜를 얻고 있는가?**

10월 5일(목) / 시100-103편

▶**내용요약:** 100편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함으로 가지게 되는 기쁨으로 인한 감사의 시다. 101편은 다윗이 의롭게 통치할 것을 소망하는 시로 완전한 길을 걷겠노라는 시인의 결단을 볼 수 있다. 102편은 시인이 고난 중에 탄원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조시킨다. 10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이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담겨있다.

▶**질문:** 팔호를 채우세요. “여호와께서 ()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102편)

▶**생각하기:** 다윗은 101편에서 자신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같이 의로와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라고 말하고 이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101:2)고 고백한다. 어찌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의롭고 완전한 통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겠노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따라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성서인들이 되자!**

10월 8일(주일) / 시112-115편

▶**내용요약:** 112편은 지혜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지는 도덕적 품성과 그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유익들을 다룬다. 의인들은 견고하지만 악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113편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찬양한다. 114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백성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를 노래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택하시고 그

10월 3일(화) / 시91-94편

▶**내용요약:** 91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통해 안전과 평화를 가지게 됨을 노래한다. 92편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93편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 그리고 영원하심을 다룬다. 94편은 복수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개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확인한다.

▶**질문:**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92편)

▶**생각하기:** 94편에서 시인은 반문하기를,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94:9)고 한다.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고들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 시인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또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과 악행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10월 6일(금) / 시104-107편

▶**내용요약:** 104편은 모든 창조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창세기1장에 기록된 창조순서대로 찬양하는 점이 특이하다. 105편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시작하여 족장시대를 거쳐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노래한다. 107편은 바벨론 포로생활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다.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고 다른 민족들의 소유를 가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105편)

▶**생각하기:** 105편을 지은 시인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105:3)라고 고백한다. 스타나 유명세를 가진 사람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안다고 자랑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유일한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어 그 이름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여호와를 자랑하자!!!**

들을 위해 능력을 행하신다. 115편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심을 상기시킴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백성은 복을 받는다.**

▶**질문:** 팔호를 채우세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에만 영광을 돌리소서.”(115편)

10월 4일(수) / 시95-99편

▶**내용요약:** 95편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촉구한다. 96편은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왕권에 대해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노래한다. 97편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면서 성도들이 합당하게 살아야함을 확인한다. 98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창조물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한다. 99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응답을 노래한다.

▶**질문:** 99편의 저자는 능력 있는 왕이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99편)

▶**생각하기:** 97편은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할 것을 권면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97:10).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선하기에 악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될 것이다.

10월 7일(토) / 시108-111편

▶**내용요약:** 108편은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 109편은 악한 대적들의 공격을 받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며 구원을 확신한다. 110편은 일종의 제왕시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가의 역할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다. 111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이를 찬양한다.

▶**질문:**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무엇을 걸듯 같이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109편)

▶**생각하기:** 109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109:22)고 한다. 다윗이 자신을 보잘 것 없고 상처받은 인생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결국 불쌍한 인생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들일 뿐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소서!!!**

▶**생각하기:** 113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을 모든 나라보다 높이고 그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신 분으로 묘사한다. 또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면서 가난한 자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돌보시는 모습을 노래한다. 이 내용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추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다!**